

# 5·18민주유공자재단

담당자	사무관	소장	결재인자
01788			10

우 502-560 광주광역시 서구 삼전동 1288번지 5·18기념문화원내 진회 / 유격회: 333-5180, 부상자회: 333-1518, 유공자동지회: 333-5181  
 전송/유격회: 333-5518, 부상자회: 334-1518, 유공자동지회: 333-0991.  
 유공자사무총장: 김영문, 부상자회사무총장: 신경진, 유공자동지회사무총장: 이경희, 이봉계  
 유격회장: 권수만, 부상자회장: 김루식, 유공자동지회장: 이두연, 이철길

문서번호 5-18-06-02001

시행일자 2006. 2. 20.

수신 아시아문화전당추진기획단  
이임천 본부장

참조 아시아문화전당추진기획단  
김양현 연구실장

선결	본부장	지시	2006. 3. 7 (수) 11:31 계정인이 유공자회로
일자	2006. 2. 20	결재 - 공람	실장 김양현
번호	184		현장 김
처리과	문화전당기획팀	사무관 권수만	김영문
담당자	박성재		

제목 (구)전남도청 5.18사적지 보존건물 관용에 대한 입장 확인

1. 귀 기관 및 귀하의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을 위한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.
2. 구)전남도청 5·18사적지 보존 문제로 그동안 귀 기관과의 협의했던 부분이 국제철계정기공모 당선작에 일부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·18의 역사성, 현장성, 상징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이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.
3. 또한 귀 추진기획단에서 보존된 건물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.
4. 사적지 보존도 중요하지만 보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 5·18 재단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방향에서 1차적으로 그 답을 찾고, 그 다음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는 기능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요청 합니다.
5. 이미 역사적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방향은 "YS 문민정부 시절의 5.18특별담화, 특별법제정 발표시 약속한 사항과 그에 따른 광주광역시

5-18기념사업 종합계획서, 오인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의 활동보고서"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6. 그 내용을 종합하면 "본관 건물 및 민원실 건물의 경우 외부 형태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, 내부를 리모델링 하여 기념관, 지형(체험)공간, 연구소, 관련단체 및 NGO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"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. 조속한 답변을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문

사단법인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  
사단법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
사단법인 5·18유공자동지회  
재단법인 5·18기념재단